

教 育 小 說

伊 太 利 少 年



32

1908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序

吾東之訾西人不過倫理之不及我而已然西人曷嘗無倫理哉余讀聖人之書國家長治久安者必由於孝悌今西人之治安皆三四百年無孝悌能如是乎故雖曰無孝悌余以爲有孝悌如父子不父子家尙不能成況國乎又能經營四方號眺天下乎嗟呼我東之所崇尙是孝悌而今將掃如矣然則風俗之墮下國體之沉淪又如何乎山川相殊風俗異宜顧所訾者即俗耳然我國三千里內極南極北殆若異壤互相譏刺西俗之異又安可訾嗟呼余豈好自侮而譽人哉痛全國之士口不絕聖言行相異使世道日墜不知所以挽焉未知其所謂聖者抑在孝悌之外耶今余之譯馬克尋親者不暇爲馬克揚欲以警全國之士未知其能感於是耶抑又歸之荒誕實諸夢外乎如使有良心者觀瞿然曰彼不聞聖人之道尙有天然之孝悌况我四千年日夕所云

々者乎然則爲一馬克而感全國亦未爲不可焉昔釋迦在靈山修道六七年尙未有得見簾鉤而頓悟使馬克爲孝悌之簾鉤亦有厚望焉

譯述者識

教育小說

伊太利少年

目次

第一章	渡海	一
第二章	河船	一八
第三章	汽車	二九
第四章	沙漠	三八
第五章	深林	四八

教育小說

伊太利少年目次終

教育
小說

伊太利少年

駒城 李 輔 相 譯 述
晉陽 姜 文 煥 校 閱

第一章 渡 海

距今數年前에意大利瑞那地方에一工人의子가有하니年이、계우十三歲의小兒로、씨單身隻影으로其父母를北亞米利加洲에尋호事가有하니嗚呼美哉라此少年의勇言이여、我が譯호야我國의少年의介紹코저호노라

此工人家는頻年以來로失敗를連遭호야飢寒에陷호고負債함이疊々호야艱困이萬狀호지라、屋을仰호고終日을思호야도、또호事에無益호故로其二年前에渠母가、南亞米利加、亞爾然丁共和國의首都不諾塞立斯에、至호야、며糊口를謀호計를爲호니盖瑞那地方의婦가外에出호야工을作호者一多호야辛을耐호고苦를忍호야海路에跋涉호다가數年後에는、또호幾千利羅(利羅는意大利의貨

名이니 一利羅는我國新貨四十錢과相當함)를贏得하야故鄉에歸하면其家計를
 小補함이不無하리라哀哉々々라利를重히여기어輕히離함은骨肉의歡이黃金의
 貴를不敵함이러라. 이에家人을訣別하고淚를灑하야行할시兩兒의中에十一歲
 된幼兒는, 가장鍾愛하던바—라衣를牽하고餌를索하니, 엇지출아分離하리오
 마는期望이滿腔함이不得不飄然히遠行을作하니라

長風萬里에海天이無恙하야, 宥不諾塞立斯를指하야進發하니數年前에他處로
 從하야此地에遷居한從兄이有하리라. 이에其周旋을賴하야亞爾存鄉의家에入
 하야家事를司理하니亞爾存鄉은富하고善을好하는人이라待遇가極히親切하고
 薪水(雇金)도, 또호豐優호지라此에在호지數月에渠母가故鄉에書信을往來함
 의魚鴈이不斷하야一月의間에音問을數通함이兩處書信을其從兄의代託하야轉
 送하고從兄도, 또호數行書를加書하야兩處로傳送하기로約定하야, 卽常例를
 作하고渠母도每月에受호는薪水八十利羅를一錢도費치아니하고, 玆양三個月
 終이면全數로卽故鄉에寄歸하니其父가, 이에漸々所負債를順次償還하야家

計가一時에恢復하고他人의代信用이有호者—되니, 오작朝夕으로其妻가早히
 歸國하야骨肉이團圓키를祈祝하니實은其妻가一日이라도不在호면一家의消火
 호는中饋를主持호者—無함이라其中에其母가最尤鍾愛하던次兒는無朝無夕에
 其遠離作客호는母를思慕함이能히已치못하더라

渠等이相別호以來로光陰이倏忽하야一載를已經함이最後에一家報를得하니謂
 호앗스되微恙을畧染하얏다호辨이오其書中에他事를未及호고語意가또호甚히
 簡捷하얏더니自此로亞米利加의消息을傳호는郵筒이響을絶호는지라渠等이西
 天을一望함이陟阨의思를不勝하야從兄의代兩次致書하야起居를探問하디, 또
 호回音을未得하니繼하야思호고渠母의主人亞爾存鄉의家로直接寄信하야一切
 를詳詢하디此書가達치못호은信面에地址를誤書하야郵局에서投遞호處가無호
 故로다當時의渠의父子가十分焦慮하야此中에變端이必有호듯호는禍亂이設有
 호드리도不諾塞立斯에在호意大利領事가맛당히保護호듯호고, 또思하디三個月
 月後(薪水金을送호는期)나佳音이幸有호샤도호며, 또米國亞爾然丁의各種新

聞紙에告白을取호야種々調査호디影響이絶無호고、또호意大利婦人某氏가作
工호다호廣告를不見호지라窮思沈慮호디一朝에失志호야下賤을淪作호야스호
家門의羞를貽호가恐호야姓氏를變換호고彼都에匿跡호야는가호야萬端憂慮가
胸中에凝結호야더라

歲月이駸々호야一瞬間에數月이又過호디音問의杳然호야依舊호지라渠의父子
가終日愁歎호야焦急호야可히名狀치못호깃고、또其幼兒가晝夜悲啼호야其母
를思見호야曰噫라此事를奈何호리호此事를奈何호리호야如此히嗟嘆호는聲
이耳에不絶호니其父가初에는亞米利加에自詣호야、必確實호消息을尋訪호지
호는、또工職이羈身호으로必一步를遠離치못호고兼호야兩兒가年幼호야經事
치못호야스즉、엇지長道에跋涉을참호아作호리오况長子는離側기更難호은、다
만年紀가稍長호야工業을漸히可任호뿐아니라其母가出門호後로부터家中의一
切灑掃爨炊의雜務를長子의게是賴호는지라故로渠等이憂思無極호고再三思維
호디終히其善策을得지못호고、계우撤工호는餘에目으로斜陽을送호야影을願

호고自傷호를뿐이러라一夕은次兒馬克이父의게忽語호야曰我一今日에父의게稟
호노니兒가亞米利加에將至호야母를尋호고歸來호리니父는我를許호소서호니
其父가眼을撐호고馬克을觀호다가汗이額에流호고疾忙히首를搖호야曰吾兒
여汝言이良是호는然이호는此事가成功기恐難호도다十三歲의童子로써旅費가甚
히充足지도못호고貿然히海를航호야、必亞米利加의遠路를奔走호야、엇지能
호리오호디

然이호는馬克은其母一一日이라도不歸호면此心이一日이라도不喪호지라渠가每
日마다其父의게哀求호고、또其父를強勸호며其父를勸誘호고爲호야道理를推
闡호고利害를分別호야曰我が今日에此地를由호야衆을隨호야登船호리이다兒
는小孩라容身호야無礙호야漁船甲板上에臥호야도可히彼處에附至호것이오彼
處에既至호면我는、다만母親、從兄의店에覓至호야從兄만尋着호면母의下落
을卽知호야可히母를卽見호지오、만약遇見치못호즉

곳領事館에走호야我母主人居住를指示호라乞호야兒가亞爾存郷家에直至호면

如何한 困難과 如何한 勞苦를 勿論하고 母를 隨하야 存身할지며、또 何處인들 可히 作工치 못하리오、이 可히 作工하면 旅費가 無하야 도 能히 歸國지 못함을 不愁할 지며 况兒가 母를 一見하면、반다시 母를 拉하고 歸하리이다 母를 拉하고 歸하리이다

馬克이 日日로 其父를 强聒하기 不已하니 父도、또 漸次 心動하니 終來로 知子함은 其父 만큼 若함이、업는지라 其父가、진실로 馬克의 年아、바 弱幼弱하느니 膽力과 勇氣가 素有하야 能히 常兒 十倍됨을 知하며 其父가、진실로 馬克이 慧眼이 有하야 能히 人의 善惡을 辨別하고 定力이 有하야 能히 食辛茹苦하야 人의 能히 處치 못할 艱困을 耐할 줄 知하며 其父가、진실로 馬克이 如此 奇特하고 堅忍한 性質의 資格이 有하야、또 最親愛하고 最戀慕하느니 母를 往尋하야 期望한 바 目的을 達코 得하느니 力量이 加倍함을 知하더라 其父가 素에 熟悉하던 友인 米國에 往來하느니 商船々長이 此事를 聞하고 甚히 敬歎하야 馬克을 亞爾然 丁々지 至하느니 船票를 贈하야 曰此票를 持하면 可히 船資를 再納함이 無하리라 하니 其孝行을 嘉하야、惝憐愛의 意를 表

함이더라 其父가 躊躇할지 良久에 竟히 馬克다려 海에 航하야 母를 尋하라고、다시 阻難치 아니하고 爲하야 行囊을 備置하야 衣服數襲을 裹하고 衣袋에 少許 克羅溫(貨幣의 名)을 納하고 從兄의 介與하느니 書信을 繕하니 時는 正히 四月이라 天氣는 漸暖하야 月明하야 夜에 瑞那人이、다 馬克을 輪船甲板 上에 見하얏더라

漁笛이 一鳴하야 船이、장차 出帆할 時에 眼見하니 淚를 含하고 聲을 呑하느니 父가 甲板의 下에서 兒로 더불어 離別하느니 最慘의 接吻로 惝謂하야 曰馬克我兒여 爾는 勇氣가 有하고 爾는 孝行이 有하니 願컨디 神聖은 兒를 加被하소서 願컨디 吾主는 兒를 救護하소서 兒여、맛당히 自愛할지어 다 兒여、맛당히 自愛할지어 다

可愛하고 可憐한 馬克이여 渠도、또 行路의 難함도 知할 것이오 旅况의 苦함도 知할지나 游釣嬉戲하던 瑞那鄉이 地平線 下에 漸次 沒見하느니 도다 蓋此船의 搭客은 太半이나 勞働作苦하던 人으로 彼都에 移住하느니 者이라 箕踞肆坐하야 奮髯酣呼함에 一人도 馬克을 理會하느니 者一無하고 馬克도、또 此種의 醜惡한 態를 耐치 못하야 悲氣는 來襲하고 神魂이 阻喪하야 兩日內에 粒食도 進치 아니하고、오작 船尾에 躡

坐하야 潛然히 流涕를 潸이오, 또 種々 悲哀하야 恐怖로써, 十二時로 由腦貫心
 하고 由心返腦함이 幾千百回인지 不知하고, 또 其母를 思念하디 吉凶을 莫卜하야
 夜에 安寢치 못하코 心이 驚하야 肉이 顫하디니 彷彿間에 有人이 呼하야 曰 爾母가 死
 하얏다 爾母가 死하얏다 하거늘 目を 注하야 視하니 一 奇異한 人이 眼前에 閃灼하느
 지라 聲이 咽하코 氣가 塞하야 苦함을 勘耐치 못하다가 驚하야 自悟하즉, 이에 一 噩
 夢이라

此를 由하야 直布羅沱의 海峽을 過하니 大西洋의 水와 天이 一色으로 心腦에 搖蕩하
 미 馬克의 精神이 爲하야 一爽하코 馬克의 希望이 爲하야 一鬆하디니 數十分鍾이 未
 及하야 意氣가, 또, 다시 鬱結하코 茫茫大海는 篩中에 顛播하느듯 尖々를 酷熱
 은 蒸籠에 悶鬱하느듯 勞働으로 移住하느 民은 穢汗이 淋漓하코 惡氣가 薰蒸하
 야 人으로서야 金軀코 저하느니라 馬克이 孤獨을 自傷하야 影을 抱하코 淒涼하디니
 數日을 又 過함의 其 腦中의 煩躁함이 殆히 熱病과 如하야 一日이 一年과 如하야, 正
 不可耐치 못하느 然이느, 是즉 晨에 起하야 夢이 醒하니 瞿然히 自失하디 我의 藐然

호 一 未成年童子가 海洋을 涉하코 波浪을 蹈하야, 呶亞米利加에 遠行함이 眞인가
 幻인가 하디니 繼하야 波를 掠하코 水를 點하느 飛魚가 甲板에 閃落 飄墜하느 者 一 不
 絶하코 夏至線에 日沒함의 人으로서, 하야 金目이 眩하코 神이 駭하야 一片紅光이 血
 과 如하코 火와 如하야 望함의 怖가 生하며, 또 一時의 水面에 燐光이 密星과 如하야
 眼簾에 閃爍하야 飄蕩함이 不定하야 夜半에 驚眺함의 夢境인가 疑하디니, 또 時로
 狂風大颶와 怒濤駭浪에 馬克이 終日 僵臥하야, 오작 身畔에 衆客이 轉輾呼號하야
 祈禱의 聲과 呻吟의 聲이 耳에 不絶하니 馬克이 自思하디 今日은 我의 垂盡할 日인가
 하디니 俄頃에 海水가 黃色을 漸帶하야 波가 平하코 浪이 靜하느 空氣가 可耐치 못하
 고 鬱蒸을 可忍치 못하야 氣가 結하코 心이 萎하야 悒塞함을 名狀치 못하릿는디 疲弱
 하 艀客은 慄然不動하야 死人의 狀과 如하니 嗚呼嗚呼라 航海를 未經한 者 一 엇지,
 嗚此 苦를 忍受하리오 况極目 天空에 涯涘가 渺無하야, 다만 今日은 昨日과 如하코
 明日은 今日과 又如할 뿐이리라

時에 馬克이 欄에 憑하야 俯仰하야 此 陷々한 景色을 觀하코, 是즉 茫然히 母를 憶함

의神이馳고形이忘함을不覺하야眼을閉하고頭를垂하야睡郷에入호듯하야視하야도不見하고聽하야도不聞하고觸하야도不覺하야五官이其紐을俱失하더니忽然히聞호즉耳畔에、또人이語하디「爾母가死호얏다爾母가死호얏다」、호는듯하거늘馬克이蹶然히起하야雙目を圓撐하고左右를疾視하야도一人도不見호도다

海程에行호자二十七日에最後一日은舡이、또호平穩호며天氣가清朗호야馬克이舡中에서錄馬排特人의老者로、더부러、가장親近하니老者一錄惹利亞地方에農務를素業호더니今에來此하야其子를探示코저하니人이和藹호야可親호지라馬克이自己의備細를語하니老者一弱齡童子로、岷多語를與치아니호고馬克의額을撫호야曰志를阻喪치勿호지어다我が爾의健康을願祝호고爾가爾母를早見함을願祝호노라고、이에憐惜함을倍加호야、岷馬克을慰하니馬克이、또호其念을一轉호야曰吾一今者에、비록顛連困苦호드리도一轉瞬間에吾의愉快호時代를見하리라호더라斯時는天氣가清爽호야移住호는民은高歌喧笑호야興

致가轟發호고老者는口에烟斗를啣호고兩手를衣篋에挿호고舡頭에서閑步호디馬克은一意를描擗호야謂하디我가不諾塞立斯에到호야舟를移호고岸에登호야街衢에步入호야、우리從兄의店을覓호야渠로더부러庭前에서歎曲을通호고手를握호야禮를作호며問하디吾母가如何호노호면渠가曰하디來호라來호라、호야吾兩人이、곳手를携호고階에登호야門을開호고進호면我가、장々我의最慈愛호는母를見하리라호더니想이此處에至함이遽然히頓止하니蓋此時에「不可說」호悲痛이有호야、이에頸에懸호十字架를密牽호고、더부러接吻호며暗々히禱告호더라

船이出帆호後로브러二十七日만에亞爾然丁國의首府、不諾塞立斯市에得達호야巴拉他的海口에投錨호니時는五月을當호야旭日이中天호고和風이拂面호는지라馬克의喜가可히名狀치못호고、또性이萬分이急호야良辰美景을觀玩호心이無호고意에謂하디我가今日에、다만數邁羅里數의遠과數點鍾의久만隔호면可히我母를見하리라我가此亞米利加에來호야此新世界를觀함이單身으로獨

行야如此흐 茫茫大海를涉호고如此흐 渺々長途를經음을思호미 一轉瞬間인듯
 하니엇지夢中事가아니며或者에一場春夢을今日에覺호민가호고兩脇間에掛호
 앓든小皮袋에所帶호旅費를摸索호즉臨行호際에二包를作호얏든거시一包만只
 存호디甚히驚慌치도아나호고惱怒치도아나호야曰造化로다誰가我의金을盜호
 앓노는造化로다然이호轉瞬間에我一我母의傍에在호리니、다시憂호거시豈有
 호리오호고旅囊을挾호고意大利人을隨호야杉板으로小輪船에更入호야埠頭
 에上호야錄馬排克의老者를別호고街衢에獨步호더라

馬克이港口로走入호야一路人을呼호야問曰敢히先生에問호노니何處로走호여
 야亞利推司에至호는路로去호는잇가其呼호者도幸히意大利工人이라馬克을諦
 視호고、또上下를一相호더니問호야曰爾가字를識호는나馬克曰然호다호니彼
 가、이에自身을轉旋호야一處로步至호야指示호야曰此處로從호야如一히直行
 호면街頭巷口에路牌가俱有호니爾가、임의字를識호즉認호야去호면至코저호
 는路를達호리라호니馬克이이에謝詞를陳호고、곳工人의指導호든바街路로趨

入호니라

馬克이一直히前을向호야行호니通衢大道가正히盡頭가無호음을覺호깃도다兩傍
 에低矮호고白을塗호家屋이櫛比鱗次호고四輪車와荷物車의往來호미織과如호
 야喧囂가耳를震호고各地出口船에日期를榜示호字가斗보다大호고種々五色의
 旗가風을隨호야翩々호는도다二步의遙를未及호야左右兩歧의路가有호나可히
 通行호만호디其盡頭호地는地平線으로、더부러相接호듯호니馬克이思호디此
 市가、참際涯가無호도다、만일幾日을行호고幾禮拜를走호야도亞米利加의市街
 가다一體히如此호리도다是以호야每히路隅에、은득路牌를注意호야細々히
 認호는、또호容易호事가아니라每히一新街로走호미心이蕩호고脉이跳호야
 暗思호디此地가我의所尋호는道一아닌가、만일我母가出來호얏스면、곳먼저會
 見호리도다호야每히一婦人만見호면心이躍호음을不止호고背立호婦人을見호면
 、반다시數步를趨호야其前을超越호야視호더라急急히行호야、또十字路口에
 至호야畧히一步를停호고、곳直立호야動치아나호고細々히審視호야曰是호도

다亞而推司의路가是로다하고, 拐折하야右로入하니 一百十七號의門牌가見호
 거늘心에念하디從兄의店은 一百七十五號라하야力을奮하고疾趨하야임의 一百
 七十一號에至하니喘息이止치아니하고呼吸이漸促하느니라, 이에暫時를立定
 하야片刻을休憩하디自語하야曰噫라母여兒가今日我의母를見호리로다하고趨
 하야過호시, 雜貨店에至하니, 拐一百七十五號의門牌라馬克이, 其家에
 進하니內로白髮이蕭條호老婦人이鼻에眼鏡을懸하고出하야西班牙의語로問하
 야曰汝가何事로此에至하얏느뇨馬克이喘息을畧定하고曰此가呼倫瑞士克梅來
 里의店이아니잇가호디此時호老嫗가意大利의語로答하야曰呼倫瑞士克梅來里
 先生은死하얏다하느니라

此時에馬克이萬矢가腦을攢하고三魂이竅를離하느듯하야曰噫라死하얏스면何
 時에死하얏느니가嫗曰호호久치아니하니數月前에渠가在此하야商業을失敗하
 고, 不獲無聊하야, 이에他方으로奔投호시聞호즉此地로由하야浦倫克에至하
 야恢復호기를圖하디數天을未及하야勾耗를聞호얏고現在호此店은老身이開

호바—로라馬克이言을聞호고呆호기木鷄와如하야唇을顫호고言하야曰梅來里
 가吾母의在호바를知하느니라吾母가此地美哥依內士家中에執業하야 (美哥依
 內士는地名이니亞爾存鄉의姓이라歐美人이地名으로明往々히氏를作호) 다만
 梅內里만其居處를知하느디我—母를尋코져하야千辛萬苦로此亞米利加에來호
 얏느니라吾等이每히家書를寄호시梅來里에托하얏더니今에梅君을不見하니
 奈何々々오呀라我—能히我母를尋見치못호리로다呀라我—能히我母를能見치
 못호리로다하고言罷에膺을拊호고大慟하니嫗曰可憐하다孩兒여爾호悲치말지
 어다老身이梅君의家를深悉치못하느雖然이호爾호, 少待호지어다彼處에一
 小童이有하야常히梅君家에出入호는者—라我로더부러梅君家를常談하디니라
 하고, 이에店의一隅에至하야手를撓호고呼하야曰來호라梅先生家中에, 此地
 某家族의執業호는婦人이有하야信札의往復호는事이有하디니爾가오히려能히
 記하느나童曰有하니이다前에, 美哥依內士家에執業호던婦人을屢見호얏느
 니此家가最北端에在하느이다馬克이曰深謝々々하느니라然이호君이

其門號를知는나門號를君이知치못하면我が다시人の問기難는니足下가
 我로더부러同往하면我が。오허려少許의色羅基(幣名)가有호이다하디童이、
 다시主婦의許可를待치아니호고、又直前호야馬克의手를携호고曰來호라々々
 々호고兩童이드디여手를携호고出호니라

馬克이童子로더부러一路에語가無호고長街로走호야短衢에通호야、호小々寄
 麗호고精緻호家園에到호야兩人이佇步호니四圍에鐵索으로繞호고且鐵索の間
 에百花가齊放호니蓋一風景이絶妙호一小園이라馬克이理由를問치아니호고鳴
 鍾을亂抽호니風姿가閑雅호一少女가門을啓호고出應호거늘馬克이氣를喘호고
 問호야曰美哥依內士의家族이此에住호았는잇가其女一西班牙의風氣로意大利
 의語를作호야曰然호다曾前에此에居호았스나今에는吾等瑞白羅士의一家가、
 此에住호았다호니馬克이言을聞호고心血이噴湧호야曰美哥依內士의家가、
 의何處로移居호았는나호니女曰聞호즉、이美哥而特李로往호았다하디馬克이
 曰善호야曰哥而特李哥而特李이何處에在호는渠等은我母의主人이라我母가其

家에執業호니渠等이我母로、더부러偕往호았도다奈何奈何時에少女가馬克
 을注視호다가半晌에忽曰儂은不知호는然이는我家老父는渠家가移遷호時에吾
 父가曾히送호았스니或者에知호는지請견디暫待호라호고身을返호야退호더니
 數分鍾에未及호야、호身材가高大호고鬚髯이灰色과如호老父를偕호고出호니
 老紳士가精神이矍鑠호고風采가飄然호야強히意大利의語를作호야曰汝母가瑞
 那人이나馬克이曰然호니이다曰然則其主人으로、더부러偕往호음을我一知호노
 니我が曾히渠等を送호야埠頭々지送호았노라馬克曰渠等이何處로移住호는닛
 가曰哥而特李로往호았는니라馬克이最初에는默然太息호다가繼호야決然호야
 曰我が또哥而特李로往호리라호니老紳士一西班牙語로써呼호야曰噫라可憐호
 다孩兒여哥而特李는此에서遙遙이數百邁羅의距離라馬克이言을聞호고面에死
 色이有호니老紳士一其憐憫호心이激刺호음을禁치 못호야馬克에手를執호고曰來
 호라裏面으로進호야、다시仔細히商量호면或可히効力호處가有호리니當히汝
 를爲호야盡心호리라호니馬克이、이에主人의寫字間으로隨入호야、다시一切

를詳告하니老紳士가耳를側하고靜히聽다가沈吟良久에爾가、曰오허려旅費
가有さ냐馬克曰少許가有さ니이다

第三章 河 船

老紳士―更히四五分間熟慮다가管을握하고一書を疾書さ야馬克을授さ야曰
小意國兒는聽을지어다爾는今日에此를携하고薄克으로往さ라薄克이此에서
離さ기兩點鍾路가되고該處에住人이半은、거의瑞那人이니爾가彼處에到하면
路를尋さ기易할것이오、또書로以さ야其紳士를謁하면爾를爲さ야照料さ야씨
爾를落色里亞로送할것이니爾가落色里亞에至하거든再히此信面을照さ야此處
의紳士의게로往하면可히爾를加而特亨로送할것이니既히彼都에達하면爾가美
哥依內士의家를訪さ야곳其家에서爾母를得見하리니爾는此書を將さ야好히收
藏さ고失치말지어다하고、다시若干利羅로써馬克手中에置さ고曰去さ고憂煩
치말지어다此去에遇할바니、爾의同國人이니、반다시爾를憐さ며爾를助さ
리라

馬克이感激無地さ야可히言說할것이無하고、오작多謝하다는一語만有할별이
러라老紳士家에出さ야向者에同來하든小童을門外에서作別さ고旅囊、을負고
喧闐熱鬧하든不諾塞立斯의市로遲蹇逶迤さ야、씨薄克의路를望さ고行하니夕
陽은林際에遙抹さ얏는지라馬克이行さ야薄克에至함의疲勞煩悶さ야心이喪
며氣가沮さ야、즈못熱病을患하者와如さ야愉快함이據할것이無하고巨艘와短
艇과飛脚艇이、或行さ고或止함의眺를凝さ고痴立하니夢境에入함과如하더라
馬克이木材를堆積한地에坐さ야日이暮さ기를待さ야堆貨房暗隅에瑟縮さ야匿
하니一夜에人聲이嘈雜さ야能히穩眠치못하고明日에色을辨さ야起하니時에、
이의果物を滿載한大風艇이有さ야落色里亞에至함을預備さ얏더라馬克이、곳
身を甲板상에寘하니船中の夫役이半이는、다倔強한瑞那人이라馬克이私心으
로窃幸さ야意로謂하디其聲音과方言을聽을즉반다시我를憐愛さ고我를慰藉하
리로다

船이既히出航함의桴의意大利의小旅客이三日四夜의航路에驚駭함을受하니意

國의 帕河를 較하면, 菴小川에 不過하도다 險哉 險哉라 波를 衝하고 浪을 蹈하야,
此를 渡하니 意國 帕河를 較하면 三倍나 長하야 那大河가 三日四夜를 船行하노도
다

洪波巨浪의 中에 此帕이 流를 逆하야 上함이 遲々하야 或長林 豐草에 蛇虎가 潛踪하
는 島를 旁하면 聲을 噤하고 過하며 時로 或極狹호 運河로 過하다가 倏然히 波面이 鏡
과 如하야 一碧 無限호 大湖로 泛하고 忽然히 一轉 瞬間에 兩山의 間으로 駛入하니 四
面이 寂寞하고 一水가 深碧하야 恍然히 此世界를 特闊하며 此船舶을 特粗하야, 泚
波心에 橫絶호 疑하더라, 더욱 進호의, 더욱 深하고, 더욱 行호의 더욱 迷惑하
야 馬克의 心이 母를 念호의 悲氣가 來襲하야 意로 謂하디 此水의 源이 或 吾母의 所在
호 處인 가하더라 每日 二回 式水夫等이 麵包와 醃肉 少許로, 泚與호는 渠가 終日에
淚痕으로, 泚面을 洗호을 見하고 聞치 아니하고 見치 아니하노디 眞호 辨이 러라 夜
에 甲板에 眠호 皎潔호 月光의 一片이 照耀호의 銀을 水面에 鋪호 과 如하야 幾回
나 驚覺하고, 泚득 心이 自傷하야 哥而 特孛哥而 特孛이 란 念이 一日에 幾千百遍인

줄 知치 못하더라 馬克이 自思호디 此河此川은 吾母의 身으로 經하든바 오此島此岸
은 吾母의 目으로 擊하든바 夜半 寂寞호 江中에 水夫의 歌聲이 忽發호을 聽하디 萬
里孤舟에 他鄉小兒로 하야 金淒咽호 心魄을 動케 하니 馬克이 回憶하디 二年前에 兒
가 牀, 에 臥호 舐母가 側에 臥하야 兒를 拍하고 安眠하라는 歌聲이 彷彿히 耳畔에
在하노듯하더라 最後 一夜는, 다시 聞호 歌聲이 嘹亮호의 馬克이 歎歎호 能히
自己치 못하디니 忽然 聞호 歌聲이 戛然히 中止하고, 다시 悲壯호 聲이 起하야 曰
奮乎々々여 吾意 意大利兒여 門에 出호의, 엇지 悵悵호 國을 去하디, 엇지 悲離
하리 오瑞那兒야, 菴, 우리 瑞那兒야 爾의 力을 奮하고 爾의 氣를 鼓하야 大風巨
浪에 躊躇치 말지어다

馬克이 歌를 聞하고 躍然히 起하야 瑞那의 血이 全身에 貫注하야 小拳을 奮握하고 船
邊 鉄欄을 扣하고 呼하야 曰 餒치 말지어다 餒치 말지어다 假令 幾歲月에 幾千里를 徒
走하야 世界를 環游하야 濱死의 狀에 陷하야 吾母 靴襪의 下에 斃호 리라 도我가 吾母
를 得見하리라 噫々라 我 吾母를 一見호의 我 吾母를 一見호의 我

馬克이此奮激호心을懷호디니忽然世界萬國의 艦艦幾千艘와 環球各邦의 旗影數百種이 眼前에 直射호디라已而 오拍落那의 河岸을 達호야 落色利亞의 市에 至호디時는 天氣가 輕寒호고 晨光이 清快호디니 馬克이 陸에 上호야 背에 旅囊을 負호고 昂然이 岸에 登호야 先히 不諾塞立斯의 老紳士에 書를 點檢호고 薄克乞人의 介紹介호名刺를 尋호야 紳士家를 將訪호시. 이에, 落色利亞市에 趨入호디니 此地가 恍惚히 重經호處와 如호야 馬路가 坦平호며, 또호盡處가 無호고 兩傍의 家屋에 金碧이 交翠호고 電桿의 線은 蛛網과 如히 密布호고 德律風이 其間에 縱橫호야 人聲이 鼎沸호고 車馬가 喧闐호야 耳가 爲호야 聾호고 目이 爲호야 眩호고 頭腦가 爲호야 震痛호디니 自思호되 今日은 決코 不諾塞立斯에서 從兄家를 尋호과 如치 아니호리라 호고 一點鍾을 彷徨호며 數百回를 問訊호야 既히 紳士家를 得호야 急히 門鈴을 抽호디니 一高大호고 髮이 稀호僕人이 形狀이 醜怪호고 言語가 麤魯호者一 聲을 應호고 出호야 曰爾가 何事로 來호얏나 爾가 何事로 來호얏나 吾門을 毀코 져호디도다

馬克이, 이에 未見호紳士의 名을 擧호야 問호디니 僕人이 曰主人이 在치 아니호고 昨日

에 不諾塞立斯에 赴호야 室內에 無人호고 但히 余만 此에 在호야 屋을 看호노라 호디니 馬克이 情이 急호디口가 躍호고 舌이 強호야 能히 擇言치 못호고 吃吃히 言호야 曰然則我, 然則我一 熟人이 無호고, 다만我一 一人만 此에 在호야 孑孑히 孤立호디니 奈何々々호고 語를 罷호디, 又書信과 名片을 取出호디니 僕人이 取호야 一瞥호고 絶이 意를 經치 아니호者갓치호야 曰主人이 在치 아니호디니 我는 斷코 能히 擅히 主張호야 客을 留치 못호디니 想컨디 此一 禮拜를 過호면 主人이 歸호디니 爾는 數日을 稍待호야, 다시 來訪호라 호고 語를 畢호디 門을 掩호고 進코 져호디니 馬克이 淚를 呑호고 哀告호야 曰我가 此間에서 既히 熟人이 無호고 또호旅費도 無호디니 我가 眞實로 何所로 投宿호를 知치 못호깃노라 호디니 僕人이 怒目으로 喝호야 曰速走호라 汝가 甚意大利로 由호야 落色利亞에 來호者一 一月에 도 幾人인지 知치 못호깃도다 此等種類가 此等 餓鬼와 乞兒의 態를 作호디니 速히 走호라 호고 語를 畢호디 揚々히 去호디니

馬克이 痴然히 木立호야 可施호術이 無호고 徐々히 旅囊을 抱호며 淹蹙히 無力호고 躑躅호야 前치 못호디니 一時에 悲가 中으로 從호야 來호디 萬種의 淒苦가 胸頭에 湧

起야、이에自思되我가何處에往야何事를作할고此地에서哥而特李에至
 라면一日의路程이되는데羞한阮弗에、비록些少利羅가、오히려留야今日에
 用은穀을지라도明日에準備함은、엇지야何處에서火車費를得호리오勞働의
 生活을爲함이、진실로辭치아니할비나然이느何處에向야事를謀호리오噫라
 我一장스乞人이되리로다하더니馬克이思가에此에至다가忽然히、도翻然하
 야曰否하다呼蹴凌踏함이여、丈夫가비록死할지라도此乞憐한態는作치아니하
 리라고馬克이意氣가頹喪하고中心이伊鬱하야聽하니四圍에馬車의聲은殷々
 히雷와如호지라旅囊을地에投하며背로空屋의牆을倚하고雙手로面을掩고泣
 하니嗚呼라可憐하다馬克이여可哀하다馬克이여頭를垂하고涕를零하야街隅에
 蹲하니行路의人이足으로蹴하고兒童이聚하야觀호시數十人이圍繞호얏더라
 何處의少年이此에在호는一語가意大利와錄馬排特으로混合호聲音이라馬
 克이耳로一入호미愕然히驚懼하야甫히頭를擡호미傍에立호者一更히驚愕함을
 己치아니하니嗚呼라此는何人인가、엇지야相見호고若是히驚호는、호其人은、

곳大西洋海航中에서馬克으로더부러親切호든錄馬排特의老者러라

老者의驚愕함이馬克보다減치아니하고馬克도見호미更히楚淒하야他語를暇치
 못호고曰噫라翁이我를憐호지어다수에我가身畔에一錢도無하니一工業을求하야
 或小許의利羅를得호저호는誰가我를見憐호며誰가我를招留호리오、비록極히
 勞瘁호드리도我는辭치아니호는비오我가、비록糞을擔호고水를汲호며街를掃
 호며塲을漉호드리도種々困苦호事를我가能히任호고每日에黑麵包少許만得호
 야도、문득滿足호거니와一刻이라도早히些微호財를積호야一刻이라도早히我母
 를會見호저호오니慈悲호紳翁이여我에게一職業을授호소서神이여我에게一職
 業을授호소서噫라我가此間에居함이針氈에坐호과如하니一刻이라도能히居치
 못호리로다老者一其顔을撫호고謂호야曰爾가工을求호는나爾가工을求호는나
 爾는性을急히말지어다此間에、우리同國人이此에在호야生을營호는者一少치아
 니하니我의意는爾를爲호야畧히路資를贖호저호노라爾의盤資가甚히簡畧하니
 力을爲호기、맛당히易호리니我를隨호야此處로一行호면或得호비有호리라

馬克이 心中에 畧舒하야 起立하야 謝詞을 申코저하니 老者ㅣ止하야 曰來하라來하라 馬克이 肩에 旅囊、을 負하고 曰何로 往하리잇가 老者ㅣ曰我를 隨하야 行하라하 고 老者ㅣ先行하니 馬克이 從하니라

兩人이 忽々히 行할시 默然無語히 幾街를 穿過하니 前에 一招牌가 有하야 眼前 直射하느니 上에 意大利之星이란 五字를 大書하얏스니 곳 閼麗한 一酒樓라 老者ㅣ步를 停하야 曰至矣라하고 瞬簾을 一開하고 頭를 探하코 一望하더니 回하야 馬克을 顧하 고 曰天이 汝를 助하니 此事가、반다시 成하리라하고 兩人이、드티여 內로 入하야 旣히 樓에 登하니 坐客이 三々五々도 伴을 聚하코 群을 成하야 夜半의 密星이 圍散하 듯 杯를 傾하코 痛飲하며 節을 擊하코 酣歌하니 錄馬排特의 老者가 行하야 一座를 近하미 客으로 더브러 周旋하야、다 起立하야 招迎하니 時에 酒가、이 半酣하야 面色이 緋紅하코 缶를 擊하코 歌음이 鳴々하코 臂를 攘하코 舞음이 僊々하야 歡笑의 聲이 喧闐하더라 老者ㅣ이에 馬克으로 하야 金前에 趨하코、다시 衆客을 向하야 詞를 陳하야 曰諸君ㅣ이여 請컨디 傾聽을 垂하소서 老朽가 一言이 有하야 奉告하느

이다 同胞의 中에 可憐한 一少年이 有하야 瑞那로 브터 此에 來하야 母를 尋호시 遙々호 數千里에 不諾塞立스되 至하야 彼都에 至호 人々이、다 謂하되 此婦人이 此間에 在치아니하코 哥而特李에 在하다하키 渠가 彼都에 在호 紳士의 紹介名刺를 覓得하야 三日四夜에、此險惡을 拍落那河를 渡하야 今朝에、비로소 此地에 到하야 紹介호 名刺와 書信을 持하코 救助를 紳士의 介往投호 즉 此紳士가 外에 出하야 游歷호지라 數天을 奔馳하미、일즉이 一生脫細姆(幣名)의 贈호도 得지 못하야 正히 絶望호 際에 在호시 老朽를 適遇하얏스니 諸君이여 渠는 愛情에 富하코 孝思에 篤호 意大利의 少年이 勇氣가 百倍호 瑞那의 兒니 諸君ㅣ이여 我가 此 一問題를 提하느 者는 我等이、장차 其尋母호는 兒를 嘉호고 爲하야、차 火車費를 代辦하야、하야 金哥而特李에 赴케 하라지니 諸君이여 覘하키를 喪家狗와 如히 棄寘치말고 顧助하소서

語가 半을 及지 못하야 座上에 五客이 拳을 擊하코 卓을 擊하며 異口가 同音으로 咸曰 엇지 有是하리오 엇지 有是하리오、우리 同胞의 勇氣가 百倍호 少年이여 我等의

身이 木石이 아니어던, 엇지 一點桑梓의 情況이 無하리오, 況吾等이 異鄉에 作客
 하야 患難을, 맛당히 相扶할지라, 엇지 此區々호는 者를 齎하리오 少年은 憂치말지
 어다 少年은 憂치말지어다 汝의 母를 爲하야 健康키를 祝하고 一觴을 舉하기를 請하
 야 君의 母를 早히 見하기를 祝하노라 하고, 이에 一客은 馬克의 頰을 撫하고 一客은
 馬克의 肩을 拍하고, 다시 一客은 來하야 旅囊을 卸하고 隣席의 三四客은, 다시 圍
 繞하야 觀하니 一時에 意大利少年 馬克이 母를 尋하노는 美譚이 樓上과 樓下에 喧傳하
 야 十分鍾이 未及하야 錄馬排特先生이 帽를 脫하고 禮를 施하니, 이의 馬克을 爲하
 야 四十二利羅를 釀하얏는지라 老者가 身을 返하야 馬克을 向하야 曰亞米利加에
 하야 乞人을 濟急하노는 事가 如此히 速함이 有치 못하다 하고, 이에 一客이 杯를 舉하
 야 馬克을 向하야 曰請견디 此觴을 傾하야, 우리 少年의 母의 健康 無恙함을 祝하노
 라 하니 既已 衆客이 齊至하야 觴을 捧하야, 卍 馬克의 祝賀하니 馬克이 雙手로 杯
 를 舉하야 曰願견디 我母는…… 語가 竟치 못하야 淚가 胸臆에 填하야 又 杯를 卓上
 에 眞하고 兩手로써 老者의 頸을 捧하고 哽噎하야 能히 語를 成치 못하더라

第三章 瀛 車

明日에 天이, 장차 曉하디 馬克이, 甯起하니 心中에 十分, 快足하야 預期호디 此行
 에 母를 見함이 不遠하리라 하야, 이에 欣然히 哥而特亭로 往하노는 第一火車를 搭하
 니 沿路에 風景을 展玩할心이 無하고 兼하야 茅店에 鶴聲과 板橋에 人跡과 曉風殘月
 에 過客이 絶無하더니 未幾에 空漠의 野를 馳하디 四居에 人이 無하고 悲風이 微颺하
 디 氣像이 慘陰하고, 또 火車에 他乘客이 無하니 馬克이 此身을 回念하디 極히 戰時
 의 負傷者와, 又 車室의 內에 僵臥하야 形影이 相伴할새 름아러라 馬克이 左右로
 仍盼하디 車傍에 矮樹가 醜狀이 可怖하고 拗枝와 橫幹이 猙獰호는 鬼恠와 如하고 雜草
 와 灌木의 荒蕪함이 地에 滿하야 目을 荒野에 極하디 一望平原에 畔涯가 無하더라,
 이에 三十分鐘을 假寐하고, 다시 目을 張하야, 兪望하니 依然히 此景光을 又作하
 고 停車場도 僻陋하야 村舍에 隱居와 如하야 荒寂함이 殊甚하더라 每히 停車場에 一
 次式 漁管이 藹地에 聲을 作하야 耳鼓를 振驚하고 또 停車場에 至호는 遽히, 又 開行
 하니 此身이 蠻民 秘密호는 部落으로 入하노는 가 疑하야 凄風이 面을 拂하고 冷汗이 額을

泚하더라四月末에瑞那로從하야船을乘하얏더니、이의亞米利加的冬을入음을
 知치못하코、오히려夏服을着하코安建斯風의嚴寒을冒하코來하니既히寒하코
 餓하며既히餓하코、또終日을憂苦恐怖하境遇에處하코兼하야數日夜에寐를失
 하코艱辛하故로種々病根이一時에馬克의藐小하코脆弱하身에俱襲하야可히堪
 耐치못하니、이에漸漸疲倦함을覺하야支치못하코半晌을睡臥하다가、맛睡覺
 함에至하야全身에氣力이無하야骨節이痠痛하니馬克이轉念하되、그、장々病
 이成하느도다途次에屢見하즉牛馬의死骸가風에暴하코雨에漬하더니、엇지吾
 身도、또하장々彼와如히荒郊에棄하야野犬과山狼의咬裂하코吞嚙하느비되리
 로다하야思念이此에及하의、더욱戰慄함을覺하야其恐怖하코戰慄하느想像이
 冥黑暗世界로射하더라嗚呼라哥而特孛에至하면반다시能히我母를見하진저倫
 히該處에至하야我母의居하바를獲치못하면奈何亞而推司紳士の家는今에安
 在오萬一我의母가不諱함이有하면奈何오하야馬克이心中에轉輾하야、다
 시夢으로入함이夢中에身이、이의哥而持孛에至하느其夜를至하즉耳畔에人이

彷彿히呼하느듯하야曰爾의母가死하얏도다爾의母가死하얏도다하니遽然히驚
 悟하야瞥見하즉屋의東隅에彪의形과如하壯하三人이狀貞가詭異하코服色이離
 奇하야頻히馬克의目注目하코、또다시耳를附하코密語하야閃灼함이、가장甚
 하지라馬克이大疑하야私念하되渠等이、반다시綠林人이아니면、또하人을殺
 하코物을劫하느暴客이리니果爾면吾가殆하도다하더니三人이仍하야、다시馬
 克을連하야睨함을已치아니하더니中에一人이有하야발서馬克의身傍에來하야
 伺하니馬克이大恐하야、이에兩手를擴하코、다시閃避의狀을作하야曰噫라我
 가何物이有하리오可히一貧하기如洗하도다我가意大利로由하야我母를尋코저
 하야來하者一라、다만單身苦客으로破衣數襲뿐이니嗚呼라諸君이여我를見憐
 하로지어다我를見憐하지어다

旅客三人이馬克의言을聞하코其惻隱하心이激刺함을禁치못하야多方으로써馬
 克을寬慰하되馬克이省치아니하코意態가悲冷하야齒가震震히聲이有하야恐怖
 를勝치못하느者와如하거늘二客이、이에外掛를解하야馬克을覆하야倚上에安

臥키다니馬克이다시夢에入갓았다가, 人聲이嘈雜하고衆客이喧笑함에至갓야聲을聞고, 驚起하야眼을拭고遠을眺하니, 이의哥而特李에至갓았다라馬克이喜躍함을已치아니하고急히火車에躍出하야停車場의一執事員더러問하야曰請問하노니技師美哥依內士의家가何處에現住하얏는잇가此間에某寺院이否못名勝호地라美哥依內士의家가, 此寺院의傍에在하니라馬克이言을聞고飛言과如히去하니馬克이이의哥而特李에在함의月이落하고星이橫하니時에正히夜半이라心中이震蕩하야數日前에落色里亞에在할情境과如하더라兩傍에家屋이一色으로白髹하고簷牙가相錯하야櫛比히居하니然이나四壁이悄靜하고行人이極稀호데黯淡호電燈의下에憧々히往來하노人은, 多다黃白兩種의相間호人이라見하고暗驚하며, 얼는擡頭하야仰見하니禮拜堂의黑暗호影이雲表에高聳호지라此時에路隅에徘徊하니冷寂闊靜호지라馬克이, 比曠荒野千里에夜半奔馳하야闇寂호區에在하니, 이의繁華호地에比호면心이稍寬함을覺하더라時에正히一教士가禮拜堂으로從하야出하거늘馬克이手를握하야禮를作하

고前路를問호시이에寺院의側에一邸宅이有함을見하고胸中이動悸하야急히門鈴을抽하니一老嫗가燭을點하고戶를啓하거늘馬克이一時에能히聲을出치못하니老嫗一問하야曰深夜에門을叩함이何事이뇨馬克이曰美哥依內士君을見코저하노라馬克이語를終치못하미老嫗一手를胸次에父하야曰曠라君이, 오히려美哥依內士君이三月前에, 이의遷居함을聞치못하얏는뇨또君이新聞紙廣告와此門前所樹호門牌에大書호美哥依內士氏가他苦孟으로移居함을見치못하얏는뇨馬克이言을聞고面色이死灰와如하야心神이沮喪하고血脉이激躍하야天을仰고呼하야曰悲하다天이여, 아에, 此에至하야, 又遇치못하는도다, 엇지我로하야金磨難을受하야盡케하고惡運이, 又到處에相隨호는고然則我的運命이, 장스我母를得見치못하고溝壑에填하야餓孀가되리니噫라我が, 장스死하며, 장스瘋하리로다然則今에美哥依內士의居호디가何地며其地가何處에在호며此에서距하기相隔이幾里가될을乞하노니我的게告호소서하니老嫗一馬克을側視하고甚히憐惜호는것과如하하야曰休哉이다, 休哉이다此間에路程이, 否